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케냐에 온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급식은 급식하는 학교가 늘어나 이제는 5학교가 되었고 학생수는 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케냐는 늘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이며 특히 마사이 마을들은 그 피해가 심한편이라 저희들이 제공하는 점심급식이 해당 아이뿐 아니라 마을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들이 방학에는 급식이 없기에 방학을 싫어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가뭄이 극심한 마사이 마을에는 방학에도 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학기부터 새로 급식을 시작한 마사이 노마야이학교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점심한끼의 식사가 너무 감사한 아이들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할 마사이 올레볼소잇 초등학교

지난 19년 동안 급식하며 사역한 마이시키리아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인데 양식을 실은 차가 지나갈때마다 언제 우리마을에 방문해줄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도 약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사이 올로세이키학교 교실 완공예배

올로세이키학교에 두 교실을 건축하여 학생들이 늘 땅바닥에서 공부하여 고생하였는데 이제는 교실에서 마음껏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학교는 학생이 90명 정도되는데 점심급식을 받을수 있어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부쿠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카부쿠교회는 계속 조금씩 성장하여 이제는 사람숫자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주일학교에 전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엘리자벳 전도사가 10명의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에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조금씩 자립을 향한 희망이 생겨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빛의 교회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렬선교사 드림

기도부탁드립니다.

1.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교회와 기도원에 항상 흘러넘치도록
2.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더욱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3.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